

조선 중·고생들, 일제 징병에 저항하려 담배를 피웠다

한국 근대화 100년

손정목 지음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조선 중학교에서는 흡연이 흔한 풍경이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학생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조선총독인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모든 조선인을 충분히 ‘황민화된 신민’으로 만드는 것을 통치의 제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과 ‘동근동종론’(同根同祖論)을 내세워 창씨개명 제도를 단행하고, 일본말을 사용토록 하는 국어 상용과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더욱이 일제는 병력 부족이 극심해지자 1938년 ‘조선지원병 제도’를 시작한 데 이어 1944년부터는 17세 이상 중·고등학생 징병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1944년 중학교 3학년이던 저자는 학생들의 조 흡연에 대해 “조선인 3학년 학생 거의 모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은 일본 징병제 실시에 대한 저항이요, 거부요 반대의사였다”면서 “이런 흡연의 풍속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인의 황민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담배는 배급제로 지급(성인남자 1인당 하루 6~7개비)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길바닥에서 꺾초를 쪼거나, 건조중인 담뱃잎을 훑쳐 콘사이스 사전 종이에 말아 피워야 했다.

‘손정목이 쓴 한국 근대화 100년’은 지

난 한세기 동안 한국이 겪은 근대화 과정을 담은 책이다.

1928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광복-한국전쟁-3·15 부정선거-서울 도시개발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직접 겪으며 역사 당사자로서 학자로서 자신이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풍속의 형성, 도시의 탄생, 정치의 작동’이라는 키워드로 엮었다.

저자는 “나는 어떻게 부정선거를 치렀나”라는 글에서 실무자로서 바라본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해 증언한다.

저자는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57년 경북 예천군에 최연소 군수로 부임한 후 1959년 8월 경북도 지도과장으로 복귀한다. 각종 선거 업무와 병사업무(징병검사·징집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투표 당일인 3월 15일 저녁 8시에 자유당 지방국장 최병환이 경북도청에 전화를

걸어온다. “대구는 대표적인 야당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자유당 표가 너무 많으면 부정선거를 한 증거가 뚜렷하니 개표할 때 자유당 표를 크게 줄여서 발표하라”는 긴급지시였다.

저자는 “어떤 경우라도 그날의 부정선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내려진 명령에 충신했다고 말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이때 일로 저자는 3년간 실직했다가 복직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지내며 강남 등 현대 서울의 도시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1977년 학문으로 방향을 틀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도시개발사를 연구하는 한편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다방 성쇠기”는 흥미롭다. 1923년께 최초의 다방이 명동과 충무로에 생긴 이래 1940년대에는 갖가지 문화행사가 열리는 중심지였다. 1965년 서울시내 다방은



1960년 4월 27일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떠나는 이승만(중절모). <한울 제곱>

1000개를 돌파했고 1993년 1만547개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 책은 ‘자유부인과 박인수 사건’과 ‘지하철 1호선 개통일에 울린 총성’, ‘서울-거대도시의 탄생’, ‘미 군정기 중앙정부에 참

여한 한국인들’ 등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저자가 경험한 주제와 연결해 담담한 필치로 써내려 갔다.

<한울·2만3000원>
/송기통기자 song@kwangju.co.kr

이미지를 통해 투사된 ‘욕망’ 갈망을 자극하는 설득의 기술

글래머의 힘

버지니아 포스트렐 지음



된다. 저자는 글래머의 역사와 함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알려준다.

영어 단어 글래머(Glamour)는 ‘욕망이 풍만하여 성적 매력에 있는 여성’을 말한다. ‘청순 글래머’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래머의 의미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블룸버그 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버지니아 포스트렐이 펴낸 ‘글래머의 힘’은 ‘글래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글래머’란 아름다움이나 멋있어짐, 호화로움, 성적 매력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패션이나 영화에만 있는 것도, 여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글래머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미지와 개념, 상징을 통해 작용하고 설득한다는 점에서 ‘비언어적 수사학’이라는 설명이다. 글래머는 스타일, 고유한 특성, 미학적 특징이 아니며 대상과 관객간의 상호작용이다. 글래머는 설득하는 힘이 강하다.

이미지에 의존해서 욕망을 투사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경박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가장 깊은 갈망을 자극한다. 책의 부제가 ‘시각적 설득의 기술’인데 이해야

‘글래머’라는 말은 19세기 초 윌터 스코팅이 처음 사용한 후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는 ‘마법의 힘’을 말할 때 썼다. 스코트 경은 한 글에서 ‘꽃내기를 기사로 보이게 하고/지하 감옥에 늘어진 거미줄이/ 대저택 연회장에 걸린 벽걸이 자수처럼 보이는 힘’을 발휘하는 게 글래머라고 썼다.

또 글래머의 전형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아이론 색션도 흥미롭다. 저자가 뽑은 아이론은 조종사, 흡연, 공포, 슈퍼 히어로, 캘리포니아, 무선 기술, 청문, 말을 탄 사람, 선택, 홍보하는 여성 등이다.

저자가 말하는 글래머의 구성 요소는 비상과 변신, 도피의 힘을 키워주는 것, ‘기교를 감추는 기교’를 발휘하는 것, 그리고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열린책들·2만5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제약의 마법**=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 애덤 모건과 마크 바든이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나이키, 이케아, 유니레버, 구글, 애플, 버진 아메리카 항공사, 야후(Yahoo),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등 혁신의 아이콘이 된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 비법은 ‘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세종서적·1만7000원>

▲**한국 사회의 질**=경제성장과 물질적인 부만으로 사회발전을 측정하려 하는 한국 사회의 외골수 성장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기획하고 이재열 교수를 비롯해 10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사회적 위험,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사회의 질 연구는 좀 더 발전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측정하려는 시도로서, 단지 경제



성장만으로는 사회발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울아카데미·3만6000원>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1945년 8월의 해방 이후 이른바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반복해 쓰이고 널리 읽혔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해석해내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이야기에 대한 비평’을 시도한다. 저자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지배적인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역할을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생성됐으며 어떤 내용으로 전개됐고 어떤 작용을 했는지 분석했다.

<삼인·1만8000원>



▲**애들아, 우리 집으로 와**=여든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일랜드 할머니, 리오 호가티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아이 140여 명을 집에 데려와 가정위탁으로 보살폈다. 그 선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흔여섯에 ‘올해의 어머니상’을 받았다. 책은 리오 할머니가 그동안 가정위탁으로 많은 아이를 돌보면서 겪었던 가슴 정한 사연과 훈훈한 이야기를 본인 특유의 위트로 유쾌하게 풀어놓은 것이다.

<예문사·1만3000원>

▲**양심 경제**=“착한 회사가 위대한 성공을 낳는다” 스티븐 오버먼이 특유의 활기찬 문체로 양심 경제 시대가 도래했을

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디지털 혁명으로 세계는 점점 더 양심적이 되어왔지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점점 깨어나고 있다. 도전적인 아이디어와 유용한 충고로 가득 찬 책은 기업과 브랜드는 새로운 문화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의 상징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싱크·1만6500원>

▲**박부장의 신나는 리얼다큐 SNS 정복기**=SNS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어디 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태우던 50대의 금융사 현직 간부가 20대의 젊은 팬토를 만나 SNS를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책의 내용은 픽션이 아닌 실제 리얼 스토리다. 저자 박승안은 W 은행사의 증권간부로 1년 전 20대의 사내 SNS 전문가인 이재혁 계장을 만나 SNS를 배우기 시작했다. 책은 7일간의 수업이라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의 기본부터 SNS의 개념,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앱과 비즈니스 적용법까지 재미있게 배워갈 수 있다.

<한스미디어·1만6800원>

어린이 책

▲**내 생일에 뭐 하지?**=허례허식으로 가득한 요즘의 생일 파티 문화를 꼬집어낸 초등 저학년용을 위한 그림책. 비싼 패밀리를 레스토당을 예약하는 대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는 생일상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서 부모님과 나 그리고 초대받은 친구들이 모두 즐거울 수 있는 생일을 만드는 과정을 그렸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여자로 태어나길 잘했어!**=여섯 살부터 열여섯 살까지의 소녀들을 위한 책. 언론인이자 저술가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인 저자는 책을 통해 여자의 신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자가 얼마나 강인한지, 여자들의 특성들에 어떤 힘이 있는지 그리고 여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왔는지를 50개 항목으로 구성해 성장기의 소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예세·1만2000원>

▲**안녕, 나는 책이야**=책이 어떻게 탄생해 발전해 왔는지, 우리 조상들은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미래의 책은 어떤지 등 책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을 조사해 정리했다. 세계 이해와 다문화 학습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와 개념, 기본적인 원

리들을 딱딱하지 않고 재미나게 풀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했다.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적 학습과 탐구 활동이 가능하다.

<열다·1만1000원>

▲**한강을 따라가요**=강원도 산골짜기 작은 섬에서 시작해 서해 바다에 닿을 때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흐르는 한강의 기나긴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과 강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살펴본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흘러가는 한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토도북·1만2000원>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개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의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 전문 기업입니다. 법원경매 낙찰대리,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부동산 투자 컨설팅 등을 원 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추천 물건

광주지방법원	2015타경 9057	근린시설
	2014타경 29078	숙박시설
	2014타경 30504	근린주택
	2014타경 30504	골프장
	2015타경2247	근린시설

* 광주지역 외 추천물건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NPL 질권대출 · NPL 매입,매각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 전국최저금리!!! 전국최고 한도
- NPL 잔금 5.2% ~ 5.9% • 중도상환 無

유한회사 수호부동산 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

담당자 이수진 이 사 010-2170-3034
김태훈 본부장 010-4557-3034

광주광역시공고 제2015 - 979 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5호선)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과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서류의 열람 공고

광주 효천2지구 택지조성 개발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사업승인 조건 등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1-5호선)과 대로2-38호선 교차부에 지하차도 신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96조, 제97조,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목적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	대로 1 5 35	주간선 도로	7,709	백운동 14호광장	광주시 구역계	일반도로	송암공단	진교24	'75.2.18
변경	대로 1 5 35~40	주간선 도로	7,709	백운동 14호광장	광주시 구역계	일반도로	송암공단	진교24	'75.2.18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대로1-5호선	대로1-5호선	일부구간내 폭원확대 (35m→35~40m)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일부폭원확대

나.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기간: 2015. 10. 16. ~ 10. 31.(15일간)
다. 의견제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10층(613-4431)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행암교차로)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5호선) 설치사업
○ 명 칭 : 광주효천2 대로1-5호선 지하차도 개설공사

다. 사업 규모
○ 사업내용

노선 명	사업규모 연장(m)	사업규모 노선폭(m)	비 고
대로 1-5호선	680	35~40	• 토공부: 양방향8차로 • 지하차도부: 양방향 4차로
대2-38호선	109.3	33.1~33.7	양방향 8차로

라. 사업 시행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표 조명현

마. 사업시행기간 ○ 착 수 일 : 2015. 11.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8. 9. 30

바.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덧붙임
사. 열람기간: 2015. 10. 16. ~ 2015. 10. 31 (15일간)
아. 열람장소: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613-4431)